

|(주)우성사료

■ 공채 36기 현업 배치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는 3월 2일자로 공채 38기 신입사원을 현업에 배치해 고객 서비스를 한층 강화했다.

지난해 11월 1,600여 명이 지원한 가운데 8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19명이다.

이번에 현업에 배치된 19명의 신입사원은 일주일간의 입문교육과정을 마친 뒤 사회경험이 많은 선배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결연을 한 뒤 연수를 시작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4개월간의 합숙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주)우성사료의 신입사원 교육프로그램은 매우 체계적이며 강도가 높기로 업계에 정평이 나있다.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교육을 시작으로 축산전문회사의 일원이 되기 위한 각 축종별 전문교육은 현장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교육의 핵심은 고객농장의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우성사료의 축산 전문인재 육성 의지는 남다르다. 72년 공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38기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출한 인원만도 48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주)우성사료를 통해 배출된 전문인재들은 국내·외 축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주)트루라이프

■ 러시아 종돈장, 연해주 공영 TV에 소개



(주)트루라이프(대표이사 정세진)는 지난 2월 7일 러시아 연해주 공영 TV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 <OTV뉴스>에 '트루라이프 보스톡 종돈장' 촬영분이 방영되었다고 밝혔다.

방송은 트루라이프 종돈장(연해주 나제쥬진스키 지역 소재, 2011년 9월 완공)이 현대식 설비로 이루어진 돈사, 사료 자동급이기, 센서 조절식 온/습도계 등 '전체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러시아 축산전문가들에게 '미래의 양돈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출입 시 철저한 방역/소독 시행, 한국에서 파견된 '트루라이프 전문 양돈 컨설턴트'의 완벽한 관리 컨설팅 등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활동상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 이는 현재 '아프리카 콜레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 전역에 '청정 축산현장'의 모범으로 현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이 더해졌다.

또한 오는 3월 첫 자돈이 출생하면 트루라이프 전문 컨설턴트들이 현지인을 대상으로 양돈 사양 관리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5천두 이상을 육성하는 대형 종돈장으로 성장할 것

이라는 전망으로 방송은 마무리됐다.

※ OTV 뉴스 방영분 링크 :

<http://www.otvprim.ru/news27049.html>

**| 두산생물자원(주)**

■ 올해 슬로건 '백두 F.I.R.E 2012!!' 정해



두산생물자원 백두사료는 올해 슬로건을 '백두 F.I.R.E 2012!!' 로 정했다.

이는 "불꽃같이 뜨거운 열정의 2012년!! 혁신을 선두로 신속하고 뛰어난 업무수행 능력을 발휘하자! (First Innovative Rapid Excellent)"는 뜻으로 뜨거운 열정과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축산전문기업으로 나아가는 원년으로 선포한 만큼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 '2012년 백두사료 대리점장 전진대회' 개최



두산생물자원은 지난 2월 10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2012년 백두사료 대리점장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백두대리점 사장단과 임직원 80여명은 두산그

룹 계열사이면서 업종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두산중공업과 두산엔진을 견학하며 기업정신과 문화를 느꼈다.

이번 행사는 '재도약과 전진의 해'를 맞이하여 백두가족의 파워를 선보이기 위한 열의를 가지고 하나됨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2011년 백두의 성장, 공헌, 판매의 선두를 달린 대리점을 시상하며 뜨거운 자리를 보냈다.

**| (주)미래자원ML**

■ 덕소연구농장 참관식 개최



(주)미래자원ML(대표이사 김성진)은 사료원료와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위해 사양실험을 할 수 있도록 덕소연구농장을 육계 960수, 산란계 210수, 실험용 쥐 60마리의 사육규모로 확충했다.

이에 지난 2월 27일 경기도 남양주시 외부읍 도곡리 소재 덕소연구농장 참관식을 가졌다.

이날 김성진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축산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지혜와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어 "제품검증에 대한 철저한 사양시험과 사료 및 식품 분야의 신소재 개발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 문의 : (02)2203-7397